

# 문헌정보 서비스, 어떻게 이뤄지나

## 도서관전산망 등서 서비스제공...이용을 저조하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

컴퓨터 이용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각종 문헌정보 서비스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을 찾아가야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데 비해,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신간정보는 물론 최신 출판계 동향과 도서관 소장 자료의 검색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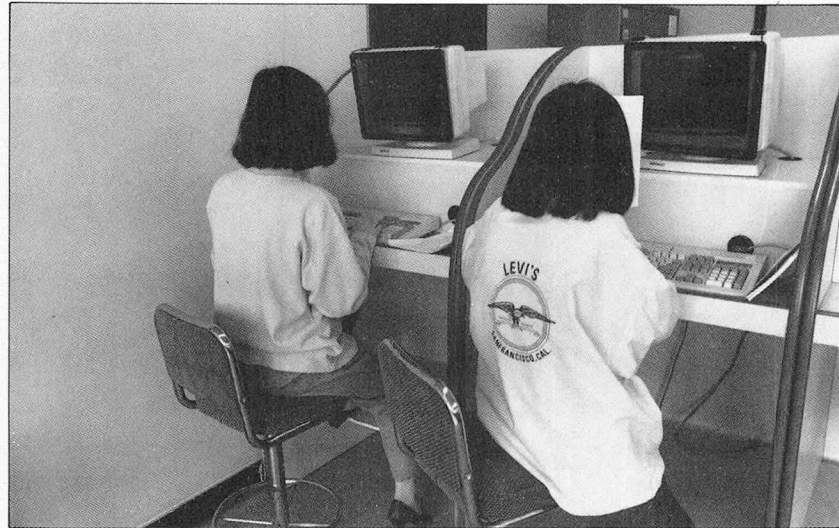
바야흐로 첨단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실감케 하는 이 컴퓨터 문헌정보 서비스는 출판계와 서점계, 도서관이라는 3대 정보루트를 일반인에게 연결시켜주는 효과적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 이용률이 낮아 활성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베스트셀러와 신간정보가 주종 이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컴퓨터 문헌정보 서비스가 가동된 것은 지난 89년 3월부터. 당시 한국데이컴(DACOM)과 한경케텔(KETEL)에서 기존의 생활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에 도서정보 아이টে임을 추가해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계속 수정·보완되며 운영되고 있는 이 두 서비스는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데이컴은 '천리안II'라는 생활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간단한 키보드 조작만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데이컴에 가입한 이용자는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의 키보드 조작으로 메인 컴퓨터에 저장된 뉴스, 증권, 물가, 취업, 문화행사 등 각종 최신 생활정보 중 도서정보 아이টে임을 선택, 해당 자료검색을 할 수 있는 것.

현재 '천리안I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서 정보는 교보문고와 을지서적이 매주 작성한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헌정보, 그리고 컴퓨터와 취업 관련서적 등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도서들은 각각 제목, 저자명, 출판사명과 함께 간략한 내용까지 소개돼 있다. 교보문고와 을지서적이 제공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의 경우는 소설, 비소설, 시, 인문, 경제 등 각 부문별로도 세분화돼 있어 유용한 신간 정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만한 점은 이를 통해 이른바 '텔레 오더링(tele-ordering)'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컴퓨터를 통한 주문판매 방식을 일컫는 이 최첨단 시스템은 일종의 '무점포 판매망'을 가능케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된 자료검색컴퓨터.

**컴퓨터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각종 문헌정보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제 이용률은 낮아 활성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간정보 위주의 내용에서 탈피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관건이다.**

판매방식으로, 현재 도서명에 의한 주문과 키워드 검색에 의한 주문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 문헌정보는 소장된 도서목록·박사 학위논문과 일반 단행본의 두 종류로 나뉘어 한국심진분류 또는 듀이십진분류에 의한 검색과 제목·저자·발행년도·주제에 관련된 단어에 의한 검색의 두가지 방식으로 검색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 88년부터 한국경제신문사가 운영하던 케텔서비스는 올해 4월부터 한국PC통신이 인수해 운영하면서 유료화됐고, 명칭도 '코텔(KORTEL)'로 바뀌었다. 데이컴과 마찬가지로 코텔도 각종 생활정보와 함께 도서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신문사와 교보문고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각각 신간도서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외에도 한국경제신문사에서는 주간 각 부문별 베스트셀러 목록과 내용요약을 곁들인 추천도서 목록, 그리고 신문에 실렸던 서평과 독후감 등을 모은 '독서수감'을 제공, 눈길을 끈다.

데이컴과 코텔의 뒤를 이은 후발주자로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하이텔(Hitel).

종로서적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각 부문별 주간 베스트셀러와 신간도서, 주간 베스트셀러 선정기준, 주간 베스트셀러 동향, 주간 종로서적 소식, 신간뉴스 등의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베스트셀러와 신간 목록은 역시 간략한 내용소개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 프로그램의 특징은 단순한 책 소개 이외에 보다 심도 있는 베스트셀러와 신간 분석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종로서적 자체의 베스트셀러 선정기준을 공개해 객관성을 높이고, 한 주간의 베스트셀러는 물론 신간 동향을 분석해 최근의 출판·독서 경향을 알려 주기도 한다.

통신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이외에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도서관에서도 컴퓨터를 통한 문헌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준비중에 있어 주목된다.

전국 도서관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우선 자체 도서관 자료를 전산화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83년 이후 자료 27만여권은 현재 컴퓨터 자료검색이 가능하며, 45년 이후 자료 8만 8천5백여권의 소급 데이터는 올해 7월부터 기존 데이터에 추가 입력될 예정이다. 이 자료들은 도서관 1층에 마련된 서지정보참고실의 자료검색 컴퓨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한 '천리안II'의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일반도서, 학위논문, 아동도서, 교과서의 4종류로 나뉘어 15건의 해당자료가 제공되는 '간략정보'와 자세한 권별 서지정보를 담은 '상세정보'가 청구기호와 함께 실려 있어 일일이 목록카드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93년까지 대학도서

관과 공공도서관 20여곳, 96년까지는 전국 350여개 단위도서관을 연결하는 전산 네트워크를 완성해 업무 전산화는 물론 각 도서관 소장자료에 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서관 이용자들도 보다 폭넓은 문헌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컴퓨터를 통한 도서정보 서비스는 서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ISBN과 POS의 실시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출입물량이 많은 서울 시내 대형서점들은 자체 업무를 거의 전산화하고 있으며, 일주일 단위로 부문별 베스트셀러와 신간 목록을 뽑아 각 통신사의 컴퓨터 도서정보 서비스에 제공하기도 한다. 이 자료들은 서점 이용객이나 전화 문의자에게도 제공되는데, 현재 시설보수공사 중인 교보문고는 재개점시 서점 이용객이 매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직접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명상도서 전문서점인 '정신세계사 책방'의 경우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용객에게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서점에서는 일년전부터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 재고 관리는 물론 자체 출판물의 독자 대상 주문판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신세계사가 출간한 신간을 포함한 명상서적 신간정보와 정신세계사 책방의 판매부수 집계에 의한 베스트셀러 100권의 목록도 알 수 있다.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요구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개설, 운영 중인 컴퓨터 도서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의외로 많다. 또한 앞으로 더욱 확산될 PC통신 이용 인구를 위해 각 통신사에서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생활정보 안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도서정보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는데, 그 원인은 우선 프로그램의 내용이 너무 신간정보에만 치중돼 있고 그 내용도 편면일적인 단조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컴퓨터인구의 관심을 도서정보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서점이 홍보차원에서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는 한 통신사 데이터베이스 개발 실무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 정소연 기자